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정두수¹, 백진아^{2*}

¹금천구상공회 회장, ²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icultural Acceptance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Doosoo Jeong¹, Jina Paik^{2*}

¹Chairman, Geumcheon-gu Chapter of SSCI

²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다문화패널(MAPS) 8차년도(2018)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10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회귀분석과 sobel test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은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와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외국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와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다문화청소년, 이중문화수용, 학업중단의도,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in Korean culture and mother's countries, which are sub-facto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icultural acceptance, on their intention of school dropout through self-esteem. For the analysis, the 1,105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8th(2018)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various research methods including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icultural acceptanc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reduced their intention of school dropout. Second, self-esteem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bicultural acceptance in Korean culture and intention of school dropout. Third, the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in mother's countri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was completely mediated by their self-esteem.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practical programs to decrease the intention of school dropout and to enhance self-esteem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suggested.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 Bicultural acceptance, Intention of school dropout, Self-esteem, Mediating effect

This article is excerpted from and revised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Doosoo Jeong(2022).

*Corresponding Author : Paik, Jina(jpaik1@hanafos.com)

Received March 12, 2023

Revised March 30, 2023

Accepted June 20, 2023

Published June 28, 2023

1. 서론

학교는 청소년이 성인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기초교육을 학습하고 사회생활을 배워나갈 수 있는 장소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매우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총 147,378명으로 전체 학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4%,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1].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반해, 학업중단률은 비다문화학생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66%, 중학교 0.73%, 고등학교 1.62%를 보였지만,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0.87%, 중학교 1.34%, 고등학교 1.91%로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2].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불완전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집단따돌림과 언어이해력 부족, 사회적 소외감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 쉽고[3], 이는 학교생활부적응과 학업중단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중단의 문제가 단순히 청소년기의 학업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권이나 이탈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성인기 이후의 진로나 경제활동 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4], 다문화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업중단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사전에 학업중단의도를 완화하고 예방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업 중단을 실행하기 이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관련 요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업중단의도는 고착된 상태가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인 상태이므로[5], 학업중단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 가정, 개인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인지, 자아,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등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6]. 또한 언어 구사 능력의 부족과 외모의 차이 및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친구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등

[7]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이중문화수용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문화청소년과 다르게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라는 이중문화에 모두 잘 적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지닌 이중문화의 특수성은 문화적 갈등과 언어발달의 지연 및 학습 문제와 사회적 편견 등에 노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성의 수용과 이중언어의 습득이라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8]. 즉, 다문화청소년이 이중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은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 연구들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태도 및 학교적응 수준이 높고[8-10],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수록 학업중단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을 학업중단의 보호요인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기존 학업중단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위험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청소년의 부정적인 위험요인보다는 긍정적인 보호요인을 다루는 것이 학업중단의 예방적 관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은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문화를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다문화청소년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1990년대 말부터 세계화의 흐름과 지자체 및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결혼 장려정책에 따라[12] 동남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를 후진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었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점차 확대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다양한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은 한국문화 중심적인 일방적인 통합 과정을 통해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고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13].

그동안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은 한국사회 융화라는 우선적인 방향 아래 이들이 한국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추진해왔다[14].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우리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강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외국문화를 폄하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 자신의 정체성 형성은 물론 학업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이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 정도를 구분하여 비교하고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다수의 연구들이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 정도를 이중문화수용에 함께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문화적 보호요인인 이중문화수용 수준을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학업중단의도의 관계에 있어 각 문화요인의 영향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중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의 관계는 먼저 이중문화수용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이중문화수용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10,15]. 구체적으로 이중문화역량이 학교생활 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성을 갖거나[6],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적응 수준이 좋다는 연구결과[10]가 발표되었다.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이중문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Moon & Ahn[1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나라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등 이중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이중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의 관계를 다룬 다른 연구들에서도[11,17] 다문화청소년이 부모의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높게 수용할수록 학업중단의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이중문화 수용이 학업중단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들을 종합해볼 때, 이중문화수용은 비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뿐 아니라 학업중단의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유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는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예측하는 변수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이중문화에 대해 부정적이고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이중문화정체성을 가진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면에 적극적인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8,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배경은 언어와 문화를 통해 다른 민족의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자아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20], 이중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나 심리적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2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중단의도와 중요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22],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감소시키는[23] 보호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24].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특정한 사회적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학교부적응을 겪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업중단의도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비다문화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학업중단에 대한 의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이중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나,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세 변인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Kim[25]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학교

적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Kim[26]의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데,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이중문화 환경 속에서 기본적으로 한국문화에 토대를 두는 동시에 주류문화와는 다른 모국문화를 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중문화의 영향력은 청소년 발달과정에 있어 일반적인 문화의 영향력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두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다문화사회에서 발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들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학업중단의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매개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의 하위요인인 한국문화수용과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은 학업중단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의 하위요인인 한국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의 하위요인인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의 하위요인인 한국문화수용과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이 각각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 패널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

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단일 표본 설계 방식을 바탕으로 개인 특성, 다문화적 특성, 배경, 및 환경적 특성의 네 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변수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8차년도 조사 자료의 총 1,188 다문화가구에서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1,105명을 선정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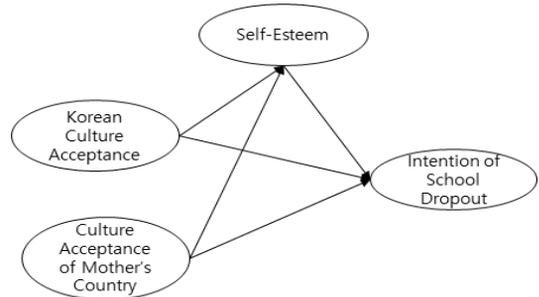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본 연구대상자인 다문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 541명(49.0%), '여학생' 564명(51.0%)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523명(47.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학 졸업'(2-3년제 졸업) 284명(25.7%), '대학교 졸업 이상'(4년제 졸업 이상) 174명(15.8%), '중졸 이하' 124명(11.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 412명(37.3%), '필리핀' 286명(25.9%), '중국(한족, 조선족, 기타)' 280명(25.3%), '기타(베트남, 태국, 기타)' 127명(11.5%)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이 690명(62.4%)으로 '만족하는' 학생 415명(37.6%)보다 높게 나타났다. 희망교육 수준은 '대학교 이상'이 867명(78.5%) '고등학교 이하' 238명(21.5%)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이 대학교육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3 측정도구

2.3.1 독립변수: 이중문화수용

이중문화수용 변인은 Nho & Hong[20]가 개발한 척도에서 한국문화 관련 항목을 수정하여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중문화수용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문화 수용과 외국문화 수용,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한국문화 수용과 외국문화 수용이 각각 5문항씩 분류되었지만 공통성 부분에서 추출값이 .4보다 낮은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임' 지표는 타당도를 낮추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나라인 한국문화수용과 어머니 나라의 문화인 외국문화 수용의 두 가지 하위변인으로 구분하여 한국문화 수용 4문항, 외국문화수용 5문항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한국문화수용 척도의 측정 문항은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움' 등 4문항이고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문화 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문화수용에 사용된 문항들의 Chronbach's α 계수는 .777로 나타났다.

이중문화수용의 다른 하위요인인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 척도의 측정 문항은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움'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설계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 측정에 사용된 문항의 Chronbach's α 계수는 820으로 나타났다.

2.3.2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Park & Oh[27]의 연구에 기초해서 다문화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측정문항은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임' 등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적 질문이 5문항, 부정적 질문이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부정적 질문 문항은 역변환으로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69로 나타났다.

2.3.3 종속변수: 학업중단의도

학업중단의도 척도는 학생의 평소 생활 및 태도와 관련된 항목으로 Lee et al.[28]가 개발한 문항을 수정해 다문화패널 연구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지표 구성은 '빨리 돈을 벌고 싶음' 등의 총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의 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중단의도 척도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α 계수는 .740이다.

2.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과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평균값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과 자아존중감,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s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한국문화수용 및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우선 이중문화수용의 하위요인인 한국문화수용과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은 최소값 1에서 최대값 4를 갖고, 각각 평균값 3.160, 2.642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은 평균값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학업중단의도도 최소값 1에서 최대값 4를 가지며, 평균값은 2.01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은 최소값 1.44에서 최대값 5를 갖고, 평균값 3.409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변수의 다변량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왜도는 -3과 3 사이의 값을 갖고 첨도는 -10과 10 사이의 값을 갖고 있어 모든 변수들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①	1.00	4.00	3.160	.523	-.261	.572
②	1.00	4.00	2.642	.583	.033	.130
③	1.44	5.00	3.409	.646	.041	-.576
④	1.00	4.00	2.011	.540	.179	.269

① Korean Culture Acceptance, ② Cultural Acceptance of Mother's Country, ③ Self-Esteem, ④ Intention of School Dropout

3.2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중단의도와 이와 관련된 이 중문화수용의 하위요인인 한국문화수용과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한국문화수용은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r=.169, p<.01$), 자아존중감($r=.385,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학업중단의도과는 부적인 상관관계($r=-.229, p<.01$)를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은 자아존중감($r=.174,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학업중단의도($r=-.082, p<.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학업중단의도($r=-.309, p<.01$)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①	1			
②	.169**	1		
③	.385**	.174**	1	
④	-.229**	-.082**	-.309**	1

** $p<.01$, ① Korean Culture Acceptance, ② Cultural Acceptance of Mother's Country, ③ Self-Esteem, ④ Intention of School Dropout

3.3 매개효과 검증

3.3.1 한국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의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29]의 3단계 분석단계를 활용하였다. 먼저, Model 1에서는 한국문화수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Model 2에서는 한국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Model 3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Model 1에서 한국문화수용($\beta=.367, t=13.456, p<.001$)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성적 만족도($\beta=-.188, t=-6.839, p<.001$), 희망교육수준($\beta=-.105, t=3.792, p<.001$)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9.9%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학교성적 만족도($\beta=.070, t=2.385, p<.05$)와 희망교육수준($\beta=.143, t=4.803, p<.001$)은 학업중단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문화수용($\beta=-.215, t=-7.374, p<.001$)은 학업중단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과 어머니의 학력은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학업중단의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7.9%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희망교육수준($\beta=.117, t=4.030, p<.001$)은 학업중단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문화수용($\beta=-.128, t=-4.150, p<.001$)과 자아존중감($\beta=-.240, t=-7.588, p<.001$)은 학업중단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and intention of school dropout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 Self-Esteem			→ Intention of School Dropout			→ Intention of School Dropout		
	B	β	t	B	β	t	B	β	t
Gender	.068	.053	1.913	-.028	-.026	-.894	-.015	-.014	-.477
Mother's Education1	-.202	-.099	-2.958**	.111	.065	1.807	.070	.041	1.171
Mother's Education2	-.064	-.050	-1.265	.003	.003	.068	-.010	-.009	-.220
Mother's Education3	-.101	-.069	-1.811	.021	.017	.428	.001	.001	.024
Satisfaction of Academic Grade	-.251	-.188	-6.839***	.079	.070	2.385*	.028	.025	.861
Expected Educational Level	-.165	-.105	-3.792***	.187	.143	4.803***	.154	.117	4.030***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453	.367	13.456***	-.222	-.215	-7.374***	-.132	-.128	-4.150***
Self-Esteem							-.200	-.240	-7.588***
F	39.051***			13.449***			19.572***		
R2	.199			.079			.125		
Adjusted R2	.194			.073			.119		
Durbin-Watson	1.897			1.791			1.780		

* $p<.05$, ** $p<.01$, *** $p<.001$, Gender(Male=1, Female=0), Mother's Education1(Middle School Graduation or less=1, High School/College/University Graduation or more=0), Mother's Education2(High School Graduation=1, Middle School Graduation or less/College/University Graduation or more=0), Mother's Education3(College Graduation=1, Middle School Graduation or less/High School Graduation/University Graduation or more=0), Satisfaction of Academic Grade(Satisfied=0, Dissatisfied=1), Expected Educational Level(University Graduation or more=0, High School Graduation or less=1)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acceptance of mother's culture and intention of school dropout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 Self-Esteem			→ Intention of School Dropout			→ Intention of School Dropout		
	B	β	t	B	β	t	B	β	t
Gender	.133	.103	3.520***	-.057	-.053	-1.745	-.025	-.023	-.800
Mother's Education1	-.153	-.075	-2.082*	.095	.055	1.500	.058	.034	-.960
Mother's Education2	-.070	-.054	-1.297	.008	.008	.179	-.008	-.008	-.186
Mother's Education3	-.152	-.103	-2.557*	.045	.037	.885	.009	.007	.185
Satisfaction of Academic Grade	-.260	-.195	-6.653***	.084	.075	2.487*	.022	.020	.663
Expected Educational Level	-.202	-.129	-4.391***	.207	.158	5.213***	.159	.121	4.124***
Acceptance of Mother's Culture	.193	.174	5.928***	-.068	-.073	-2.419*	-.022	-.024	-.801
Self-Esteem							-.238	-.285	-9.508***
F	16.700***			6.277***			17.239***		
R2	.096			.039			.112		
Adjusted R2	.091			.032			.105		
Durbin-Watson	1.895			1.895			1.775		

*p<.05, **p<.01, ***p<.001, Gender(Male=1, Female=0), Mother's Education1(Middle School Graduation or less=1, High School/College/University Graduation or more=0), Mother's Education2(High School Graduation=1, Middle School Graduation or less/College/University Graduation or more=0), Mother's Education3(College Graduation=1, Middle School Graduation or less/High School Graduation/University Graduation or more=0), Satisfaction of Academic Grade(Satisfied=0, Dissatisfied=1), Expected Educational Level(University Graduation or more=0, High School Graduation or less=1)

미치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2.5%로 나타났다. 즉, 한국문화수용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졌음을 확인했고, 이는 한국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학업중단의도를 해소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은 학업중단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중단의도를 낮추기도 한다. Baron & Kenny[29]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에서 Model 2의 영향력과 Model 3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든 구조적 관계에서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어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3.2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29]의 분석으로 검증하였다(Table 4 참조). 먼저, Model 1에서는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Model 2에서는 어머니나라의 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Model 3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Model 1에서 성별(β=.103, t=3.520, p<.001),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β=.174, t=5.928, p<.001)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성적 만족도(β=-.195, t=-6.653, p<.001), 희망교육수준(β=-.129, t=-4.391, p<.001)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9.6%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학교성적 만족도(β=.075, t=2.487, p<.05)와 희망교육수준(β=.158, t=5.213, p<.001)은 학업중단의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β=-.073, t=-2.419, p<.05)은 학업중단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과 어머니의 학력은 학업중단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학업중단의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3.9%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희망교육수준(β=.121, t=4.124, p<.001)은 학업중단의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β=-.285, t=-9.508, p<.001)은 학업중단의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학업중단의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1.2%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이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졌음을 확인했

고, 이는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은 학업중단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중단의도를 낮춘다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두 변수 사이에 교량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Baron & Kenny[29]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에서 Model 2의 영향력과 Model 3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든 구조적 관계에서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어 완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4 효과분해

3.4.1 한국문화수용과 자아존중감의 효과분해

한국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업중단의도에 이르는 경로를 효과분해를 통해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첫째, 한국문화수용은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beta=.367, p<.001$), 자아존중감은 학업중단의도에 직접효과($\beta=-.240, p<.001$)를 미치며, 한국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215, p<.001$), 간접효과($\beta=-.088, p<.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자아존중감은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Table 5.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between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self-esteem and intention of school dropou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Acceptance of Korean Culture→Self-Esteem	.367***		.367***
Self-Esteem → Intention of School Dropout	-.240***		-.240***
Acceptance of Korean Culture→Self-Esteem→Intention of School Dropout	-.215***	-.088***	-.303***

*p<.05, **p<.01, ***p<.001

3.4.2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과 자아존중감의 효과분해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업중단의도에 이르는 경로를 효과분해를 통해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첫째,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은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beta=.174, p<.001$), 자아존중감은 학업중단의도에 직접효과($\beta=-.285, p<.001$)를 미치고 있으며,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073, p<.001$), 간접효과($\beta=.050, p<.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자아존중감은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이는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은 학업중단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중단의도를 낮춘다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두 변수 사이에 교량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Baron & Kenny[29]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에서 Model 2의 영향력과 Model 3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든 구조적 관계에서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어 완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between acceptance of mother's culture, self-esteem and intention of school dropou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Acceptance of Mother's Culture→Self-Esteem	.174***		.174***
Self-Esteem→Intention of School Dropout	-.285***		-.285***
Acceptance of Mother's Culture→Self-Esteem→Intention of School Dropout	-.073***	.050***	-.023***

*p<.05, **p<.01, ***p<.001

3.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한국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Sobel test statistic = -6.662($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Sobel test statistic = -4.983($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7.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Sobel test statistic	p
Acceptance of Korean Culture→Self-Esteem→Intention of School Dropout	-6.662	.000
Acceptance of Mother's Culture→Self-Esteem→Intention of School Dropout	-4.983	.000

***p<.001

4. 결론: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종문화수용이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은 학업중단의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이 낮을수록 학업중단의도가 높고($\beta = -.215, p < .001$),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 역시 그 정도가 낮을수록 학업중단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73, p < .05$). 이는 이중문화수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10,16]와 유사한 결과이다. 다문화청소년이 한국문화와 외국인 부모의 문화 모두를 긍정적으로 수용할수록 학업중단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1] 결과와도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보유하고 있는 이중문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주요한 요소임을 시사해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됐다. 한국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와 관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8,19], 자아존중감이 학업중단을 낮추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4]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이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beta = -.215$)과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beta = -.073$)을 비교하여 볼 때,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보다는 한국문화수용정도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더욱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관련해서도 한국문화수용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고,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수용적 태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 요인에 보다

관심을 갖고 이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실천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한국문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적극적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한국문화수용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한국문화가 낯설어 새롭게 적응하고 학습해야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므로 한국문화수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 안에서 한국문화를 좀 더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한국문화역량의 증진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부모의 외국문화를 긍정적인 장점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나라의 문화수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외국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청된다. 기존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한국인 부모가 외국 부모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해주는 비율이 32.6%, 외국 부모의 언어를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녀가 42.5%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내에서 이중문화 습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외국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언어 및 문화적인 전통과 유산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30]. 따라서 이중문화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교육 등의 실천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한국문화뿐만 아니라 외국 부모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 부모와 함께 전통놀이, 음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16]. 또한 학교의 사회 교과목 과정 안에 다문화청소년이 외국인 부모의 나라를

소개하는 내용, 또는 외국인 부모가 일일교사로 참여해 본인의 나라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기회 등을 포함하여 다문화청소년이 외국인 부모의 문화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비다문화청소년이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문화장벽을 타파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이 어느 한쪽 문화가 아니라 이중문화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촉진하고 이중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 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 동화에 집중한 지금까지의 다문화정책은 문제가 있으며[14],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다양한 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31].

넷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다문화청소년에게 적절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다양한 성취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이 상이한 문화적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 상담 등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25], 긍정적인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학업상의 어려움은 학업중단의도를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수행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개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기초학습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학업수행이 어려운 다문화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이 가능한 배움터나 지역사회 내 학습지원이 가능한 학습공간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고

려할 수 있다[8].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에 한정되었고 따라서 연구결과를 전체 다문화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초·중·고등학생들은 각각의 시기에 맞는 발달적 과업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학교급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발달 특성에 맞게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어머니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지닌 광범위한 다문화청소년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해 연구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개별적인 어머니 나라의 규범과 문화적 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다문화청소년이 준거하는 집단적 특성에 따라 특정 집단을 세분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자아존중감, 학업중단의도의 관계를 이미 설계된 문항에 따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객관적인 상태만을 보여줄 뿐 다문화청소년이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맥락적·환경적 요인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다문화청소년이 보유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인 이중문화수용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청소년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학업중단의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 이점에 주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을 장점으로 부각하고 학업중단의 보호요인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과 학업중단의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논의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후속 작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고, 한국사회의 글로벌 인재이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1). <http://kostat.go.kr>
- [2] The Ministry of Education. (2020). <https://www.go.kr>
- [3] W. J. Kim, J. A. Jung, T. E. Shim & S. Y. Lee (2017). A Stud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hanges in Resilience by Language Ability and Bicultural Acceptance Using a Latent Growth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28(4), 167-194. DOI : 10.14816/sky.2017.28.4.167
- [4] J. J. Han & J. Y. Hong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on Parenting Attitudes and Intention of School Dropout i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24(3), 493-504.
- [5] E. W. Diener & F. Fujita (1995).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20-129.
- [6] E. Y. Jin (2015). Mediating Effect of Bicultural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2, 303-326.
UCI : I410-ECN-0102-2016-330-000859950
- [7] M. J. Keum (2008).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Dropou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4(1), 299-317.
- [8] R. H. Lee & H. R. Jang (2019). The Association between Bicultural Attitude and Learning Attitude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Friend Support through Ego-resilienc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7(3), 103-114.
- [9] J. Y. Kwak (2020). A Study of School Adaptation amo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Subtype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65, 165-188. DOI : 10.17997/SWRY.65.1.6
- [10] H. Y. Kim (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dapta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Welfare and Cultural Diversity Studies*, 12(1), 87-108.
- [11] D. Jeong & J. Paik. (2020).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Ego-resilience, Biculture-acceptance, Bullying and Parenting Attitude on Their Intention of School Dropou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0), 161-173.
- [12] I. S. Nahm & H. S. Jang (2009).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Native Countri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s Families. *Social Theory*, 35, 7-30. UCI : G704-001341.2009..35.005
- [13] N. H. Jang (2015). A Study on Developing the Bicultural Competence of Children Born to Korean-Filipino Multicultural Families. *Theology of Mission*, 38, 299-330.
DOI : 10.14493/ksoms.2015.1.299
- [14] H. Y. Jeong (2017). The Effect of Government-support Policy on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of Multicultural Youth. Paper Presented in the Conference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555-583.
- [15] S. G. Carrera & M. Wei (2014). Bicultural Competence, Acculturative Family Distancing, and Future Depression in Latino/a College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3), 427-436. DOI: 10.1037/cou0000023
- [16] Y. H. Moon & E. M. Ahn (2010). The Influence of Bi-cultural Attributes of Children From Female Marriage Immigrants on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Northern Cholla Province Rural Area.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3, 47-68.
UCI : G704-001921.2010..33.005
- [17] A. S. Wo & J. Paik (2021). The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Biculture Accept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 379-388.
DOI : 10.14400/JDC.2021.19.1.379

- [18] S. O. Lee (2018). A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Relevant Fac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among Multiethnic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9(1), 179-208. DOI : 10.14816/sky.2018.29.1.179
- [19] J. G. Lee & H. J. Lee (2019). The Influence of Bilingual and Bicultural Factors on Self-esteem of Multicultural Youth. *Journal of Social Science*, 30(4), 81-100. DOI : 10.16881/jss.2019.10.30.4.81
- [20] C. R. Nho & J. J. Hong (2006).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About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 gi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2, 127-159.
- [21] C. Carmona., K. I. Van der Zee., J. P. Van Oudenhoven & N. Hernaiz-Agreda (2016). Intercultural Competences and Self-Identity as Key Factors to Adaptation. Papers from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 [22] J. M. Sun., H. Kim & S. D. You (2011). A Qualitative Study on Factors for School Continuation of Potential Teenage School Drop-out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9(1), 87-105.
- [23] E. S. Moon (2006).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Motivational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School Dropout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2), 405-423. UCI : G704-000199.2006.20.2.004
- [24] R. R. Kim & J. K. Lee (2016). A Study on the Danger and Protection Factors that Affect Adolescents' Intention to Quit School - Focusing o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9), 53-81. DOI : 10.21509/KJYS.2016.09.23.9.53
- [25] J. H. Kim (2019).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ed by Depress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7(3), 115-124.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0393>
- [26] D. J. Park & S. M. Kim (2021).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Wellness*, 16(2), 267-273. DOI : 10.21097/ksw.2021.05.16.2.267
- [27] N. S. Park & G. J. Oh (1992). Effect of Methylphenidate Treatment on Cognitive Behavior and social, Learning, and Emotional Adaptation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11(1), 235-248.
- [28] J. Lee., S. Kang., H. Kim., U. Lee & E. Yang (2010). Risk and Protective Factors Perceived by School Dropou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8(2), 225-241.
- [29]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ata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30] J. B. Chun (2018).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Attitude of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Self-esteem of Their Adolesc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1(3), 121-146. DOI : 10.14328/MES.2018.9.30.121
- [31] Y. Yang & S. Lee (2020). The Effect of Parental Neglect on Multiethnic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 Focusing o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Withdrawal.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3(4), 129-149. DOI : 10.14328/MES.2020.12.31.129

정 두 수(Doo-Soo Jeong)

[정회원]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22년 3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21년 3월~현재 : 금천구 상공회의소 회장

- 관심분야 : 다문화, 청소년, 노인, 노동
- E-Mail : ds8485@hanmail.net

백 진 아(Jina Paik)

[정회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사회학박사)

- 2006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사회정책
- E-Mail : jpaik1@hanafos.com